



대전주보

〈2023년 사목지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피조물을 돌보며 함께 걷는 공동체

발행 김중수(제2751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천안청당동성당(천안동부지구) 본당설립 : 2014.01.15 / 주보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연중 제23주일 2023년 9월 10일(가해)

제1독서 에제 33,7-9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로마 13,8-1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마태 18,15-20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청년 사제성소 “퀴바디스” 모임

9월 16일(토) 오전 10시
교구청 2층 성소국

교구 예비 성소자 모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김홍식 시몬
광천 주임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서 보듯 초세기 교회는 교우를 가족처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교우들끼리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정도의 형제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사람이 가서 설득해도 안 되면,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이실직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신앙적으로 심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이 써졌던 곳은 여러 문화와 종교들이 섞여 있던 도시였기에,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을 겪던 상황입니다. 교회에도 주변의 이방 종교에서 영향을 받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이단’에 물든 신자죠.

그런 때는 별수 없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모진 결정을 내리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

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결정이 곧 하늘의 결정이라는 의미죠. 이처럼 교회에 엄청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교회가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할 경우 엄청난 파국이 닥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희년인 2000년을 맞이하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회가 역사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청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때의 상처가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언제라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복음은 교회에 막강한 권위가 주어졌다고 해석하기보다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은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래야 교회의 결정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1034)
유판식 토마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160~220)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다(Fiunt, non nascuntur Christiani).”라고 말한다. 그의 이 심오한 통찰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역시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실제로 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언제나 하느님께서 바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머무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는 ‘되어감’의 길에 있어 시노달리타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엔조 비앙키(E. Bianchi)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여정을 일컬어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이라고 표현한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현주소(現住所)와 하느님의 기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좁히는 과정인 쇄신과 개혁이 요구된다. 교황 프란체스코는 “교회의 쇄신은 무엇보다 순례하고 여정을 걷는 교회 그리고 살아 있는 교회로서,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다시 말해 [...] 교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쇄신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교회 역사 안에는 쇄신과 개혁에 대한 수많은 요청과 그에 응답하는 운동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운동들이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새롭게 되는 쇄신의

과정에 있어 아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유혹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 유혹이란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 혹은 변형을 교회의 쇄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브 콩가르(Y. Congar)는 『Vraie et fausse réforme dans l'Eglise(교회 안에서의 참된 개혁과 거짓 개혁)』을 통해 두 가지 유혹의 존재에 대해 말한다. “먼저, 교회가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물들’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이는 법률이나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자 하는 유혹으로 바리사이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하느님의 사업을 실행하려는 기존의 형식들을 넘어서려는 모든 노력들을 거부하려는 유혹이다. 만일 기존의 형식들이 절대화되면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을 회당의 유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황 프란체스코 역시 『복음의 기쁨』 2장과 담화문들을 통해서 사목 일꾼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을 고발한다. 서로를 부추기는 세 가지 해악인 개인주의의 팽배와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열정의 쇠퇴를 먼저 지적하고 이기적인 나태, 무익한 비판주의, 영적 세속성, 적대감과 성직주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시노달리타스의 회심을 촉구한다.

안동훈 안드레아 신부 한산 주임

지구위기 막아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중 메탄의 1/3분이 가축에서 나오며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약 80배 이상 됩니다.

육류 소비증가로 세계 경작지의 80%, 곡물의 37%가 가축 먹이로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흡수지역 감소와 메탄발생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열대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를 위한,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식물 기반의 다양한 채소, 곡물, 콩류 등 비건 식품에서도 단백질, 칼슘, 철분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동물기반의 식품보다 성인병 예방, 동물 복지, 생물 다양성 보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식생활 변화가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김명숙 노엘라 생태환경위원회



56. 미사 해설 - 성찬 전례(20) : 영성체 예식의 의미

마침 영광송으로 감사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성찬 전례는 “영성체(領聖體)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성체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더 넓게는 공동체의 식사,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들 간의 공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곧 내가 성체를 모시는 행위를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가 성화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룩한 잔치를 통해 그리스도와 친교로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영성체 예식”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80항에서는 “영성체” 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성찬례 거행은 파스카 잔치이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합당하게 준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빵을 나누는 예식과 다른 준비 예식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신자들이 곧바로 영성체를 하도록 이끈다.”

말씀 전례는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 전례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주님의 신비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시어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찬 전례는 두 가지의 예식으로 나뉘는데, 감사 기도는 신앙의 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되심을 보았다면, 영성체 예식은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일치가 된다는 점이 성체의 교리적 특징입니다. 미사 중 성찬 전례, 특히 감사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신비를 함께 보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체를 모시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성체 예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주님의 기도 권고
- 2) 주님의 기도
- 3) 평화 예식
- 4) 빵 나눔과 하느님의 어린양
- 5) 영성체 전 기도
- 6) 영성체 초대
- 7) 영성체
- 8) 감사 침묵 기도
- 9) 영성체 후 기도

다음 편부터는 영성체 예식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차장



천주교대전교구
성령쇄신봉사회

<18> 봉사자의 삶

새얼센터는 성령쇄신 봉사자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령쇄신 봉사자는 봉사자로 살기를 희망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묵상회를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면담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봉사자로 살기를 희망하게 되면, 거쳐야 할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정시간 교리 교육과 봉사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작은 일들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면담과 묵상회 조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5년 정도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곳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우리 봉사자들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은 봉사자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느님의 손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임을 확신합니다. 많은 분이 봉사자로서의 삶을 희망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내야하고, 그런 만큼 가정에도 소홀히할 수밖에 없기에,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저와 우리 봉사자들을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 운동 봉사자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교회와 사제의 식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홀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만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시몬 신부 성령쇄신봉사회 전담

연재를 마치며 그동안 연재해주신 김기범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끌벅적함이 그림다

강의실을 향해 갈 때 복도 끝에서부터 제자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면 벌써 가슴이 설레 오곤 했습니다.

지쳐있다가도 그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게 되면 거짓말같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어깨가 펴지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제자들은 강의가 시작되는 줄도 모른 채, 서로 먼저 말하느라 분주했고, 그래서 늘 강의는 이렇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자, 자, 조용, 조용,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강의 시작 할까요?”

학생들이 조용히 해 주길 바랐지만 내심 그들의 그 소란스러움이 마냥 부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한 것이 바로 생동감 넘치는 청춘의 증표이고, 서로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었기에 그 소란스러움은 짜증이 아니라 유쾌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강의실에선 늘 그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럴까요? 평생 처음 겪는 코로나 19라는

당혹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강의실 풍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랍게도 청춘의 그 ‘시끌벅적함’까지 휩쓸어 갔습니다. 강의실을 향해 가는 복도에는 이제 놀랄 정도로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 안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적막함 속에 홀로 고립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무인도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시끌벅적했던 강의실이 그림습니다.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았는지 서로 재잘거리기에 분주했던 그때가 그림습니다. 이제 강의는 늘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휴대폰 그만 보고 옆 사람하고 인사부터 나누면서 강의 시작해 볼까요?”

개강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단순히 옛날이 좋았고, 지금이 나쁘다는 푸념이 아니라, 그때나 이때나 소중한 것은 기억되고 살아남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오늘도 강의실을 향해 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학교수

성지를 걷다_ 대흥봉수산 순교성지(1)

1. 대흥봉수산 순교성지 설정 배경

124위 순교복자 중 약 50위가 대전교구에 연고가 있다. 그중 29위가 예산 땅에 내력을 둔다. 2014년 8월, 아시아청년대회 기간 중 한국순교자 124위 시복식은 이울어 가는 103위 시성식의 열정을 기억하게 하였다. 124위 시복식은 순교선조들에 관한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다그쳤다. 2015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으로 하느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셨다.

대전교구는 124위 순교복자의 신앙과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성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면서도 순교지라는 공통분모를 갖춘 곳은 청양칠갑산 아래 정산순교지와 예당호를 바라보는 예산봉수산 아래 대흥순교지였다. 복자 이도기의 순교신앙의 은사를 잘 간직한 ‘정산일기’의 배경이 되는 정산은 지가가 비쌌다. 대신 배산임수 지형인 예산대흥봉수산 아래는 형옥터(刑獄址)가 그런 대로 남아 있어 2015년 8월 최종 결정지가 되었다.

! 글·사진 대흥봉수산 순교성지



알립니다

교구알림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9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곳 : 9.26(화) 19:30, 천안불당2동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제20차 지구를 위한 미사와 대전동부지구 사회복음화본과 회의

- 때-곳 : 9.23(토) 10:00, 법동성당
- 일정 : 10:00 지구를 위한 미사,
10:50 대전동부지구 사회복음화본과 회의
후 식사 / 대전동부지구 본당사회복음화본
과장님은 꼭 참석 요망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전담사목

청년성서 일정 안내

- '말씀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도보성지순례)
 - 때-곳 : 9.16(토), 함덕성당과 솔피성지
 - 신청 : 9.10(주일)까지
- 하반기 그룹봉사자 교육 및 그룹봉헌식
 - 봉사자교육 9.23(토) 16:00~24(주일) 16:00
 - 그룹봉헌식 9.24(주일) 10:00~16:00
(파견미사 15:00)
 - 곳 : 대철회관 / 신청 : 9.1(금)~15(목)
- 문의 : 카카오톡 '대전교구 청년성서'
- 홈페이지 참조(<http://app.agnus.or.kr/>)

제47차 젊은이 성령묵상회

- 때 : 10.21(토) 09:30~22(주일) 17:00, 1박2일
- 곳 : 새얼센터
- 대상 : 젊은이 누구나 / 모집 : 10.6(금)까지
- 신청 : 카톡플친[아자리아],
인스타DM[AZARIAH_2021]
- 참가비 : 10만원 / 선착순 40명
[농협] 301-0274-0526-51
(예금주 : 천주교 대전교구 성령쇄신봉사회)
- 문의 : (042)824-6773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

- 때 : 9.24(주일) 13:00~17:00
- 곳 : 하품센터(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부모&자녀 / 참가비 : 2만원 / 2인
- 주제 : 있는 그대로의 '나'
- 신청 : <http://hapum7179.godomall.com/>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청년 폐제기도

- 때-곳 : 9.13(수) 19:30, 하품센터
- 대상 : 함께 기도할 청년 누구나
- 진행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제56차 아버지학교

- 때-곳 : 10.7(토)~8(주일) 09:00~17:00
- 곳 : 수리치골 성모성지
- 대상 : 모든 아버지 / 수강료 : 14만원
- 문의 : 가정사목부 (042)256-5487~8
- 인터넷신청 : <http://familia.djcatholic.or.kr>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ME 주말의 개념을 다시 되새기는

제10차 새신주말

- 때-곳 : 9.16(토)~17(주일), 수리치골 성모성지
- 대상 : ME 주말 참가 경험이 있는 부부
(종교 불문)
- 신청-문의 : 010-2960-4010, 010-2026-2010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본 당

유성본당 지휘자 모집

- 서류 : 이력서(경력기록)
- 문의 : 010-5427-7101, (042)823-4751

대전목동본당 '소리찾기' 청년 성가대 제24회 발표회

- 때-곳 : 9.16(토) 19:00, 목동성당 대성당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호스피스 완화의료 일반인 교육

- 때 : 9.20(수)~21(목) (총 14시간)
- 곳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상지관
9층 상지홀
- 대상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비용 : 5만원(점심 제공) / 신청 : 9.13(수)까지
- 신청-문의 : (042)220-9419, 9004

대전가톨릭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어르신 모집

-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 1~5등급 어르신
- 제공지역 : 대전 전지역
- 어르신택에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제공
- 세면, 식사, 이동도움, 청소 및 세탁,
외출동행, 일상생활 업무대행 등
- 문의 : (042)635-5609

김종수 주교의 2박3일 말씀피정

- 주제 : 유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 때 : 9.22(금) 16:00~24(주일) 점심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18만원
- 문의 : 010-8848-5690

대전성모케어센터 직원 채용공고

- 직종 : 요양보호사(자격증 필수)
-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 문의 : (042)220-6900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9.14(목) 15:00, 주교좌 대동성당
- 미사집전 : 오영진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4116-0140

대전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 때-곳 : 9.14(목) 14:00, 탄방동성당
- 집전 : 김재덕신부 / 대상 : 전신자
- 문의 : 010-5435-8512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취업률 73.7% 충북권 1위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 모집 :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 원서접수 : 9.11(월)~15(금)
- 문의 : (043)270-0100~0102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2차모집

- 접수 : 8.14(월)~9.13(수) / 전형일 : 9.16(토)
- 모집 :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게임개발
-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 학점은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 문의 : (02)705-8678 www.soganggame.ac.kr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4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문 :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전국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 10.14(토)~12.14(목)
- 접수 :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 문의 :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0/14-19 베트남 마카오 167만원
10/31-11/11 산티아고 도보순례 405만원
11/13-23 이스라엘 요르단 505만원
신청 및 문의 T. (02)2281-9070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외 9인 협진
T. (042)489-8888 유성온천역 1번 출구 5분 거리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포 강희권 울리오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라식, 라섹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대표원장 양준영(가톨릭) 전 충남의대 교수
T. (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전기(주간) 신입생모집

- 석사 :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 박사 :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 석·박사통합 :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 [1차]접수 : 9.20(수)~10.6(금), 전형일 : 10.14(토)
- [2차]접수 : 11.27(월)~12.4(월), 전형일 : 12.9(토)
- 문의 : (02)705-8668, <https://gsot.sogang.ac.kr>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일 기념행사

- 곳 :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새남터성지
- 문의 : 070-8672-0327 새남터 성지 안내소
- 10인 이상의 단체는 꼭 사전 전화접수
- 때 : 9.14(목) 12:30~17:00
 - 영화『탄생』상영, 영화감독과의 토크쇼
- 때 : 순교일 9.16(토) 미사와 행사(13:30~17:00)
 - 성극“성 김대건 신부님의 모친 고우르슬라진”
 - 미사: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님과 사제단
 - 순교자 현양 칸타타 (Prima Ars 합창단)

2023~2024 청소년 성소계발과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한 독후감 공모전

-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자
- 분량 : A4 2장 이상
- 마감 : 2024.3.17(주일)까지
- 시상 : 청소년, 일반 각 장원(100만), 우수(50만), 장려(20만)
- 자세한내용은 한국평단협 홈페이지 www.clak.or.kr 참조

오센틱 무브먼트를 통한

진정한 내면의 소리듣기 동작치료

- 우리 몸이 알려주는 진정한 지혜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움직임의 진동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오센틱 무브먼트 9월 워크샵
- 때 : 9.16(토) 13:30~17:00
- 곳 : 마음정원영성센터(탄방동)
- 참가비 : 3만원
- 문의·신청 : 협동조합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 115만원 / 문의 : 010-3645-9028

청주교구성령대회

- 때 : 9.16(토) 09:00~17:30
- 강사 : 김용열 신부, 한연홍 신부, 오웅진 신부
- 찬양 :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 곳 :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문의 : (043)213-9103, 010-4400-1344

가톨릭상지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1차 : 9.11~10.5
- 문의 : 입학홍보처, (054)851-3021~2 <http://ipsi.csj.ac.kr>



수도회 및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수녀)

- 때 : 10.27~29, 11.17~19
- 2박3일 : 시작(금)17:00 마침(주일)15:00
- 곳 :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문의 : (031)321-9054, 010-4154-0885 예수마음선교수녀회
- 루멘 수녀님과 함께하는 노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 때 : 10.6(금) 16:00~8(주일) 13:00
- 곳 : 연하리 피정의집 (투스텝 포교 베네딕도회 대구 수녀원)
- 피정비 : 20만원 (대구은행 송순정 508-14-861703-4)
- 문의 : 010-9531-4835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 대전지구형제회에서는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새 가족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견진성사를 받은 대전교구 가톨릭 신자
- 모집기간 : 9.15(금)까지
- 문의 : 김원중 요셉 봉사자 010-5147-7867 박순학 크리스티나 선교담당 010-9383-7698

젊은이 피정

- 때 : 10.7(토)~9(월)
- 곳 : 스승예수피정의집(여주)
- 대상 : 만35세 미혼 여성
- 회비 : 2만원
- 문의 : 010-9816-0072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성경완독 : 10.13(금)~21(토), 11.10(금)~18(토), 12.8(금)~16(토)
- 문의 : 010-3340-0201 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과달루페집 : 하루 피정. 대상 : 누구나

- 테마 : 일상 안에서 사는 순교
- 때 : 9.16(토) 10:00~16:00
- 곳 :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대전 서구 갈마로 187-1)
- 신청 : 010-2658-9728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 때 : 언제든지 문의
- 곳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 문의 : (061)382-2214, 010-7159-9674

2023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10.16(월)~26(목)
- 이스라엘, 요르단(11일) / 490만원(대한항공)
- 11.1(수)~12(주일)
- 발칸3국 메추고리 순례(12일) / 460만원(대한항공)
- 11.6(수)~18(월)
- 이집트, 이스라엘(13일) / 510만원(EK항공)
- 11.9(목)~21(화)
- 스페인 도보순례(13일) / 460만원 (대한항공)
- 공동경비포함 / 문의·신청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 분도여행사 (02)852-8525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차량운행 / 비교
치유미사	매주 화 14:00	내용 : 미사, 치유기도, 안수 등	지족역 2번 출구 13:40 대기출발
1일대피정	9.11(월) 09:00	미사, 말씀, 기도회, 안수 등 강사 : 김경희 수녀(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지족역 2번출구 08:40 대기출발
치유의 밤	9.14(목) 19:00	강사 : 고영민(서울대교구 찬미봉사자) 내용 : 미사, 말씀, 치유기도, 안수 등	지족역 2번출구 18:50, 19:10 대기출발



한끼100원나눔운동
2023년 사랑의 온도현황

48.1°C

총 모금 481,749,246원

[8.19~25 모금액] 3,341,940원
본당 1,961,940원 / 개인·기관·행사모금 1,380,000원

가톨릭 여행사 성지순례

1월 8일 일본 나가사키 순교 성지 4일 135만원
1월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515만원
2월 26일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원지 12일 450만원
문의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미카엘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제주·추자도 성지순례 34만원 매주출발
한국성지 10월 4일~7일 원주·춘천교구 4일
스페인·포르투갈순례 13일 1월 5일~1월 17일
미카엘 여행사 T. 010-8650-9690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주교좌 대흥동본당 교중미사 주례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8월 27일(주일)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교중미사를 봉헌했다.

교구장 주교 영명 축일 미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의 영명 축일을 맞아, 8월 28일(월) 교구청 경당에서 교구청 직원과 대전 교구 평단협회장, 여성연합회장, 수도자, 사제가 참석한 가운데 미사 봉헌을 했다.

해미본당 순교자 현양순례



해미본당(주임 한동성 신부)은 8월 18일(금) 해미읍성에서 해미성지까지 30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자 현양순례를 했다.

신자들의 기도와 땀을 봉헌함으로써 선조 신앙인들의 순교정신을 기리고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릴레이 피켓팅(연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8월 28일(월) 국민의 힘 대전시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에 연대활동을 했다.

대전동부지구 판암동본당 건진성사와 설립 30주년 축하식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8월 27일(주일) 대전동부지구 판암동성당(주임 김민수 신부)에서 본당 교우 59명을 대상으로 건진성사를 집전했다. 이날 본당 설립 30주년 축하식도 함께 거행했다.



청년성서 제35회 만남의 잔치

청년성서 전담사목부(전담 김용우 신부)는 8월 27일(주일) 성남동성당에서 '제35회 만남의 잔치'를 개최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의 주례로 거행된 파견 미사에 참여한 68명의 젊은이들은 '말씀의 봉사자'로 파견되었다.

합덕본당 세례식과 본당의 날 행사



합덕본당(주임 강진영 신부)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전에 2명의 신자 세례식과 미사 후 본당의 날 행사를 했다.

본당 야외에서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전신자들이 성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신방동본당 주일학교 여름 캠프



천안신방동본당(주임 이윤제 신부)은 7월과 8월에 초중고 주일학교와 복사단의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초등부 주일학교 저학년(유~초2)은 8월 5일(토), 고학년(초3~6)은 8월 19일(토)~20일(주일)에, 중고등부는 7월 15일(토)~16일(주일), 초중고 복사단은 8월 7일(월)~8일(화)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했다.